

再刊本도 아직까지 그所在가 잘 알려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이도 再刊本이 松隱 李秉直氏에게 珍藏되어 있어 昨年末에 文化財委員會에서 그것을 寶物로 指定케 되었다. 世間에는 凡常한 高麗本도 거의 湮佚되어 當年の 影子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에 있어 國史의 寶典인 本書의 高麗刊本이 出現된 것이야말로 斯界의 慶幸事가 아닐 수 없다.

本書의 板式은 每半葉 八行(小字 即註는 雙行)·行 十六字(小字는 行에 따라 二十一—三字로 高르지 못함)·四周 單欄이요 版心에는 葉을 따라 雙魚尾 或은 線口·書名으로 韻紀上 또는 下·葉數等이 새겨져 있다. 表紙는 縱이 二八·八cm 橫이 一七·五cm며 板匡은 縱이 一九·二cm 橫이 一四·五cm인데 可惜하게도 下卷 十八葉가운데에서 六·七·八·十六·十八葉等이 缺落되었다.(上卷은 全十八葉完) 그러나 三刊本이 몇 곳에 健在함으로 그 缺落은 補足할 수가 있는 것이다.

公州 石壯里 無土器文化

孫 寶 基

홍수가 스쳐간 금강 유역의 장엄덕 밑한 웅덩이를 중심으로 四개의 打製石器와 一〇여개의 石器破片을 주는 것은 당시 延世大學校에 客員學者로 와있던 알버트·머저(Albert Mohr)와 그의 처 앨·앤·셀을(L.L. Sample)이었다. 그들의 이 귀중한 발견은筆者에게 제시하고 발문을 제의해왔다.(一九六四年 五月 二〇일) 당시 延世大學校 大學院 史學科에서는 일제기 發掘計劃을 세우고 發掘對象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筆者는 모어씨와 五月 二十七일의 그곳(公州郡 長岐面 石壯里)를 다시 찾아 그 웅덩이에서 數個의 破片과 約 一五cm나 되는 파랑개비형의 『브레이드』를 찾아 내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延世大에서 發掘할 것을 決定하고 發掘許可申請을 내었다. 延世大에서 발굴을 하게 된 것은 약 六個月이 지난 十一月 十一일부터이었다. 《연세춘추》一九六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四년十二月七일 三
八〇호(三面참조)

十一月부터 二十

九일에 걸친 발굴에
서出土된 유물을地
層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土層……李朝磁器

破片 二점

第一粘土層……植物

腐蝕土直徑約一

〇cm

第二粘土層

第一石層

第三粘土層……甕土

約 2m x 1m

第二石層……斑岩石

器破片

第四粘土層……石

英·礫石 Hand Axe 斑岩 Hand Axe 斑岩 Chopping

tool 礫石 Pestle 斑岩玢岩石器破片

木炭層

第五粘土層……礫石 Pestle 玢長岩 Micro-Blade 玢質角岩 Scraper 石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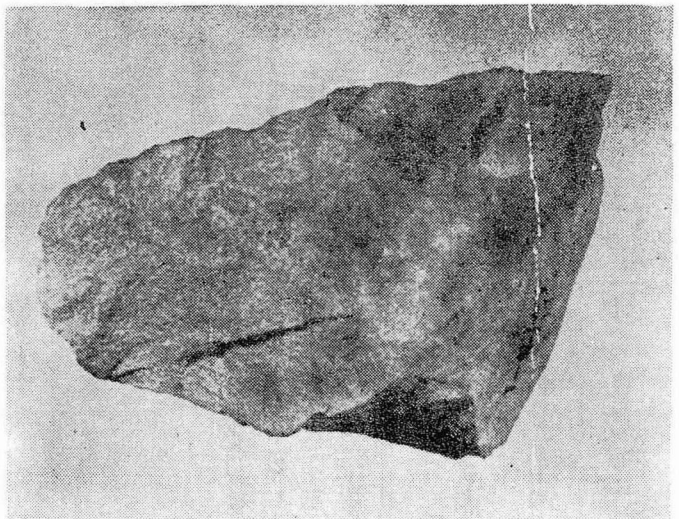
Burin, Hand Axe, Chopper, Chopping tool, Pointed

tool, Scraper.

第三石層

第六粘土層……第五粘土層石器와 같은 種類의 石英大形石器

이 같은 分布를 各地層에서 볼수 있었는데는 斑岩 玢岩系의 石器가 木炭



層以上에서 始作하여 木炭層을 지나 얼마 안되어 드물어지고 珪長岩系의 細石器가 木炭層附近에서 부터 몇點 나왔으며 第三石層에 가까워지면서부터 石英石器가 흔해지고 石器의 形態도 차츰 큰 것이 나왔다. 그러나 土器는 단一點도 遺物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無土器文化임에 틀림없다. (嚴相鎬地質課長의 結論은 河端丘가 發達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筆者와 鄭明鎬先生에게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유물분포와 지층의 구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研究資料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상세한 것은 앞으로 정식 報告書에서 다루겠지만 이곳에서 채취한 木炭의 C-14감정의 결과와 나오면 유물의 편년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앞으로의 기대는 더욱 큰 바 있다.

이번의 발굴은 아직 유적지가 연속되어 있어 년차계획으로 발굴을 마쳐야만 확실한 결과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發掘의 意義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韓半島에도 新石器時代에 앞서서 文化가 있었음을 證明하게 된 데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同時代 또는 이보다도 앞서는 文化遺跡址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더욱 광범위한 踏查와 더욱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을 器調하고 싶다. 끝으로 金元龍先生의 아낌없는 協助에 깊은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廣州 元堂里 胎封

尹 武 炳

지난 一九六一年 五月中旬에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所在 胎封 一個所가 盜掘되었다. 盜掘者는 전에 同面 光東里에 居住한 바 있었다는 洪某이라 하며 이대는 多幸히 里民에게 發覺 制止되어 그대로 埋沒되었다 한다. 그러자 洪某는 그 胎封 所在地 林野의 所有者인 同里居住 朴喜永을 피여 다시 그것을 캐내어서 賣却 分配키로 合議를 보고 目的을 達成한 후 出土遺物을 上記 朴喜永家에 隱匿 保管中 同面 支署員이 探知하는 바

가 되어 그事實이 上部에 報告되었다. 當時 文教部로부터 連絡을 받고 現地에 出張한 筆者는 廣州警察署에서 該遺物을 調査한 후 署長이 배플어준 好意로 自動車便을 얻어 現場을 다녀올 수 있었다. 盜掘場所는 이미 埋沒되어 內部 構造를 實地로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直接目擊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강 그 內容을 把握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出土된 遺物은 大小 한벌의 白磁胎缸과 大理石質의 誌石 한 個이다. 이와같이 한셋트가 되는 胎缸은 그 후 梨大博物館과 李洪根氏에게도 各各 收藏되어 그중 李洪根氏 所藏의 白磁胎缸에 對하여서는 崔淳雨氏가 本誌 第四卷 第六號에 紹介하고 있다. 元堂里 出土의 胎缸은 이 李洪根氏 所藏品과 거의 같으며 胎封을 만든 해도 같은 弘治十八年이 되는데 그 胎誌文은 다음과 같다.

皇明弘治十四年二

月初四日未時生

王子敦壽阿只氏胎

弘治十八年二月十

九日亥時藏 (一一・二cm x 三一・四cm x 五・二cm)

誌文을 새기는 方式도 꼭 같다. 胎缸이 생긴 모양도 同一하지만 크기는 若干 작다. 즉 元堂里 것은 밖갈 큰 항아리의 全高 三六cm, 口徑 二一・三cm 蓋徑 一三・五cm 그 속에 들어 있던 작은 胎缸은 全高 二一・五cm 口徑 九・二cm 蓋徑 一一・五cm이다. 이들 胎缸에 대하여서는 崔淳雨氏가 資料를 모아 다른 機會에 다시 檢討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는 胎封의 藏置方法에 對하여 言及하였다.

胎封은 元堂里마을 前面의 언덕 봉우리 위에 있었다. 元堂里는 廣州郡 廳所在地 東北方으로 約 十五里 떨어진 慶安川邊에 位置하고 있다. 西南쪽에서 흘러내려온 慶安川이 이곳에서 迂廻하여 北流한다. 胎封이 있는 봉우리 즉 胎峯은 이 慶安川을 굽어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五萬分之一地圖에 標高 九四・五m의 小三角點을 標記한 봉우리가 바로 그곳에 該當한다.

胎缸과 誌石은 圓形의 石函속에 넣어서 땅속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다